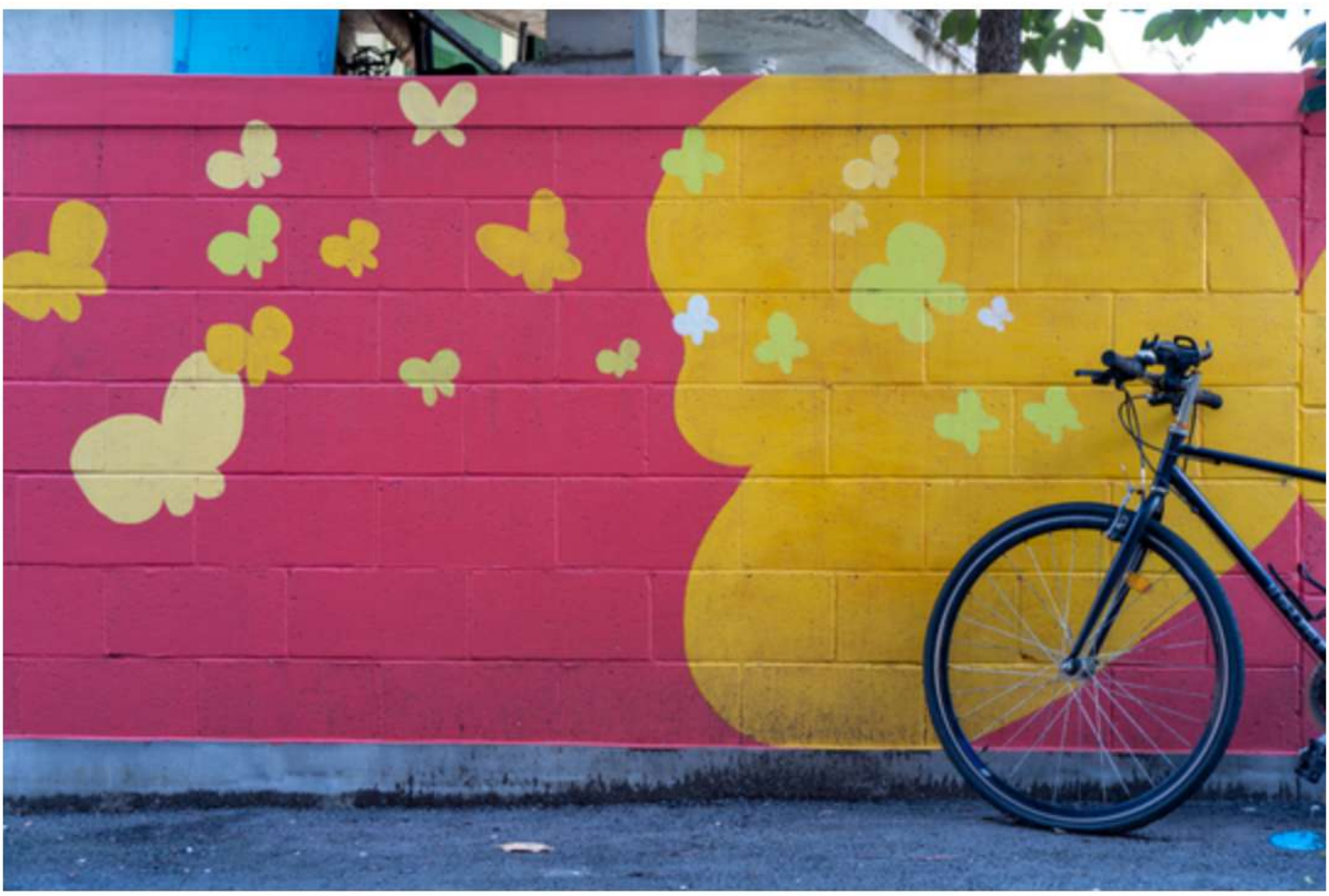
경기옛길센터
Gyeonggi Cultural Routes Centre

VOL.

26년 겨울호

온라인소식지



contents

01 경기옛길 소식
- 경기옛길 함께RUN
- 경기옛길 지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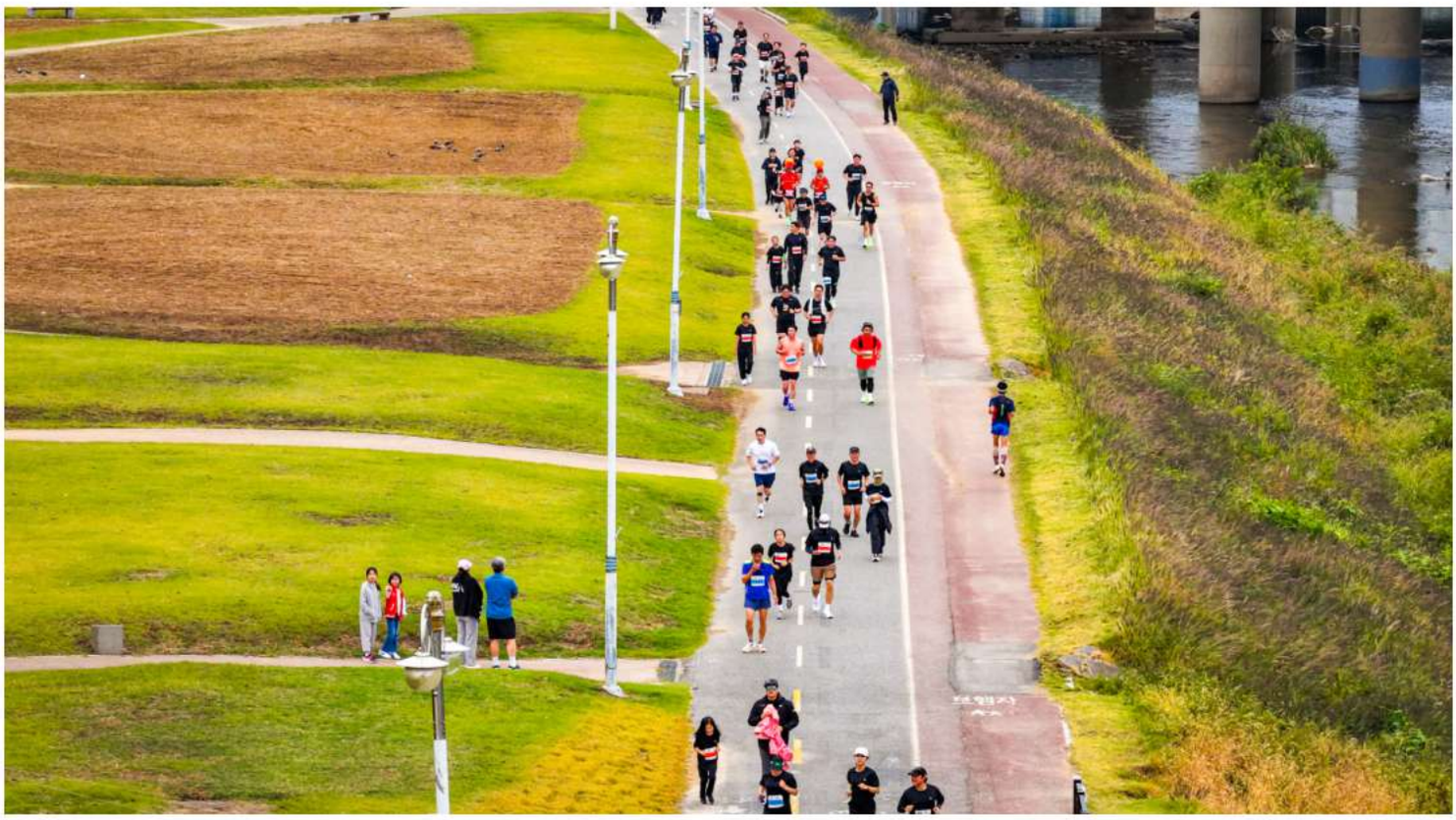
02 코스소개
- 길따라 맛따라
: 겨울 팥 편

03 문화유산&이야기
- 지평향교
-한탄강 삼형제바위 이야기

04 전문가 기고
- 기록따라 걷는 영남길
: 군사들이 이동했던 길


산림청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함께 달리며 만나는 경기옛길, [2026 경기옛길 함께RUN] 성료!

경기옛길을 따라 함께 달리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남양주 도농체육공원과 왕숙천 일원에서 열린 '2026 경기옛길 함께RUN'에 도민 900여 명이 참여해 가을날의 경기옛길을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옛길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달리기를 통해 역사문화탐방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평해길 제1길 구간에서 진행된 달리기는 10km, 5km, 가족런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체력과 취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함께 달렸습니다.

행사장에는 달리기 외에도 경기옛길을 알아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옛길 7개 노선을 소개하는 홍보부스에서는 '가고 싶은 경기옛길' 스티커 투표와 로고 컬러링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관심 있는 노선의 안내지를 받아보며 다음 탐방을 계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짚신 던지기, QR코드 보물찾기, 코스프레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팝콘·솜사탕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어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행사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경기옛길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길로 익숙했던 경기옛길을 달리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2026 경기옛길 함께RUN'. 이날의 즐거운 경험이 경기옛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경기옛길 곳곳을 찾아 걷고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엄나영 연구원>

반려견과 함께 지키는 경기옛길, 경기옛길 지키개 출범!

경기옛길에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옛길을 걸으며 탐방로 곳곳을 살피는 '경기옛길 지키개'가 지난 10월 3일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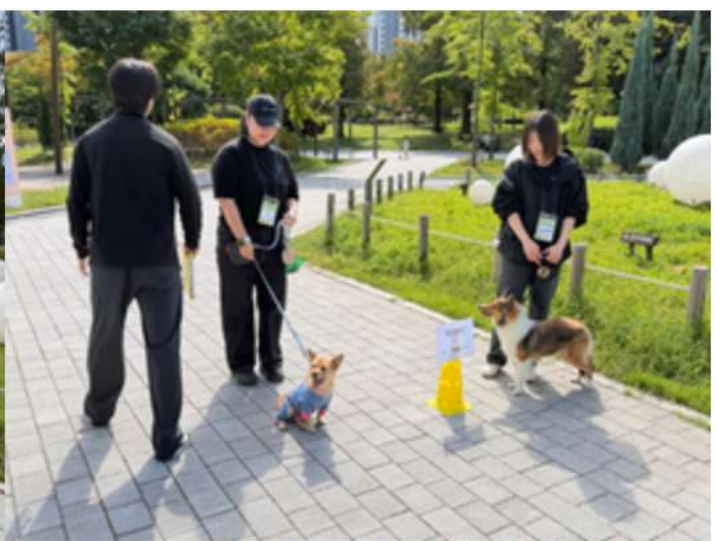
'경기옛길 지키개'는 반려견과 함께 경기옛길을 탐방하며 길 안내 시설이나 보행환경 등 불편한 점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19일 수원 효원공원에서 진행된 사전테스트에서는 반려견의 기본 통제 능력과 다른 사람 및 반려견에 대한 반응 등을 평가했으며, 참여한 반려견 17마리 모두 활동 적합 기준을 충족해 지키개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어 10월 3일 삼남길 제8길 오산생태하천길에 위치한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키개 임명장과 활동 기념품을 전달하고, 전문 훈련사와 함께 올바른 산책 방법과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배우며 안전한 탐방을 준비했습니다.

창단식을 마친 경기옛길 지키개는 11월 14일까지 약 6주간 경기옛길 곳곳을 누비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참여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옛길을 걸으며 탐방 중 발견한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경기옛길 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 초기부터 길 안내 리본 부족, 공사 구간의 불편사항, 가로등 설치 제안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이 경기옛길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뜻깊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걸으며 가꾸어 나가는 경기옛길, 앞으로도 지키개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이소정 연구원>





길따라 맛따라 -겨울 팥 편

추운 겨울,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나 달콤한 팥 간식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예부터 겨울철 별미로 사랑받아 온 팥은 팥죽부터 찐빵, 떡, 붕어빵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경기옛길을 따라 걷다가 들르기 좋은 '팥 맛집'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겨울바람에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팥의 따뜻하고 달콤한 맛으로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신둔팥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0
봉화길 제4길 곤지바위길

봉화길에 자리한 신둔팥죽은 아담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넉넉한 양의 팥죽과 정성스러운 반찬을 맛볼 수 있는 동네 맛집입니다. 지역 주민과 단골손님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팥죽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쑨 팥으로 만든 찹쌀도너츠는 한 번에 여러 개씩 구매하는 단골손님이 있을 만큼 인기 있는 별미이니, 팥죽과 함께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성맘모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01-1
봉화길 제2길 한양삼십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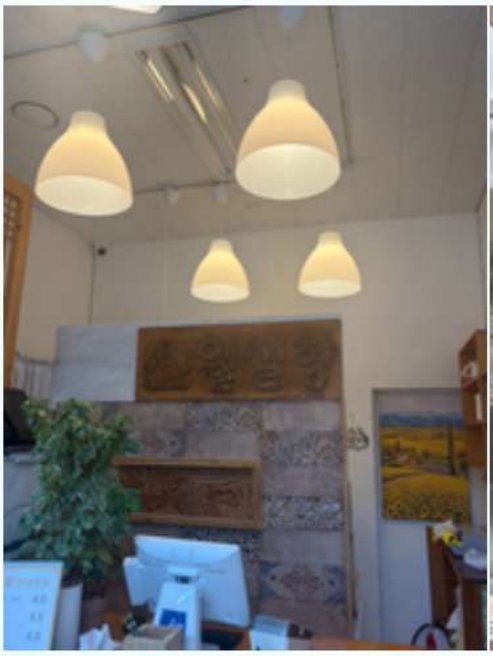
봉화길이 지나는 남한산성에 위치한 산성맘모스는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날 수 있는 제과점입니다. 그 중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인 팥찐빵은 가마솥에서 직접 쑤어 만든 팥앙금을 사용해 더욱 특별합니다. 찐빵은 최소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하시고, 추운 겨울 남한산성을 걷다가 따끈한 찐빵을 호호 불어 먹으며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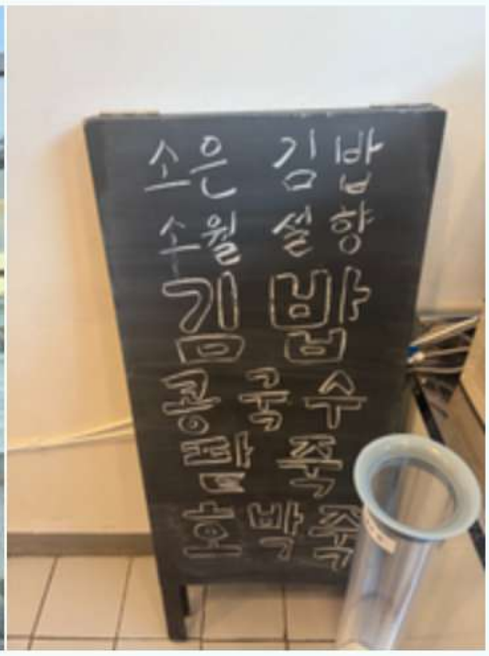
소월설향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67길
의주길 제1길 벽제관길

의주길 제1길 삼송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소월설향은 테이블이 세 개 남짓한 작고 아늑한 식당입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팥죽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곁들임 메뉴가 있는데, 바로 정겨운 집김밥을 떠올리게 하는 김밥입니다. 따끈한 팥죽과 소박하면서도 든든한 김밥을 함께 맛보며 겨울 옛길 여행의 허기를 달래보세요.







허허떡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9 603동 150호
영남길 제2길 낙생역길



영남길 인근 상가에 위치한 허허떡집은 전통 떡부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색 떡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떡 전문점입니다. SNS에서 화제를 모았던 피자설기로도 유명하지만, 부드럽고 쫄깃한 바람떡과 찹쌀떡 등 팥이 들어간 떡도 놓칠 수 없는 별미입니다. 오전에는 손님들로 붐빌 수 있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떡을 고르고 싶다면 오후 시간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소정 연구원>











지평향교 선비들의 배움터

평해길 제7길의 이름이기도 한 지평향교(砥平鄕校)는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과 유교 문화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오랜 세월 지역의 교육과 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평향교는 1983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제20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옛 선비들의 배움과 예의 정신이 깃든 지평향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고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공립 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의 학교처럼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는 곳이면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지평향교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숙종 10년(1684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평향교는 앞쪽에 교육 공간을, 뒤쪽에 제례 공간을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교에 들어서면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명륜당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뒤편에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명륜당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기숙자인 동재와 서재, 대성전 주변의 동무와 서무는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주요 건물들을 통해 조선시대 향교의 공간 구성과 건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지평향교의 교육 기능은 사라졌지만, 옛 성현을 기리는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평향교에서는 봄·가을마다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합니다. 석전제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들에게 지내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처럼 지평향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유교 문화와 전통을 오늘날에도 계승하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의 배움터였던 지평향교는 이제 옛 선비들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해길을 걸으며 지평의 오랜 역사를 만나고,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배움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기호일보 <양평군 지평향교, 공기 2574년 춘기 석전제 봉행> 안유신 기자

<이소정 연구원>

한탄강 삼형제바위이야기

경흥길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탄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경흥길에서는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특별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자리한 '삼형제바위'입니다. 주변의 강폭이 넓고 물이 맑아 여름철 피서지로도 알려진 이곳에는 애틋한 모성애와 형제애가 깃든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한탄강의 물결 속에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삼형제바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랜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일찍이 남편을 잃어 궁핍한 살림이었으나, 삼형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하여 집안이 화목하였다. 아들 삼형제는 얼마 안되는 농사였지만 아버지가 하던 농사일을 이어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추수기에는 먹고 살 만큼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큰 아들이 17살, 둘째가 15살, 막내가 13살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강가 밭에서 김을 매던 삼형제는 더위를 식히러 한탄강으로 들어갔다. 셋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장난을 하면서 즐겁게 목욕을 하였다. 이 강에는 흐르는 물 때문에 모래가 파여 나가서 생긴 웅덩이가 여기 저기 많았다. 그것을 모르고 제일 깊은 웅덩이 근처에서 놀던 막내아우가 발을 헛디뎌 급한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큰형이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속으로 아우의 뒤를 따라 헤엄을 쳤다.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물살이 깊고 물살은 빨라서 도저히 동생을 따라잡아 구할 수가 없었다. 큰형도 막내와 함께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큰형과 막내가 떠내려가는 광경을 본 둘째도 그 뒤를 쫓아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으나, 형과 아우를 구해 낼 수는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없이 흐르는 강물 위에 삼형제가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갔으나 어느 누구도 구해줄 사람은 없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가 급히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삼형제의 어머니는 허둥지둥 강가로 달려왔으나, 그 때는 이미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일 강가에 나와 아들들의 생전 모습을 그리며 세 아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보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눈앞에 신기한 모습이 나타났다. 어제까지도 보이지 않던 큰 바위 세 개가 강 한복판에 우뚝 솟아난 것이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세 개의 바위 중 제일 큰 바위에 재단을 만들고 해마다 한 차례씩, 동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대부터 이 세 개의 바위를 '삼형제바위'라고 불렀고, 지금도 삼형제바위를 보면 제일 큰 바위 꼭대기가 넓적한데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라고 한다.

이야기 발췌: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저

기록따라 걷는 영남길 이야기
군사들이 이동했던 길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교류와 소통의 통로가 되었던 영남대로는 역사의 격변기마다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영남대로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일본과의 외교의 길이었고, 통상의 길이었던 영남대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주요 진격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국왕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절단이나, 조선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첩자들에게 부산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길과 주변의 사정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속속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철저히 준비한 왜군은 임진년 신흥병기인 조총을 앞세우고 부산에 상륙해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거칠 것 없이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조선군은 신립의 지휘로 영남대로 상에 있었던 가장 험준한 고개인 문경새재를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영남대로를 이용해 진격하던 왜군을 방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까닭인지 신립이 산맥으로 첩첩이 둘러쌓인 천혜의 요새 문경새재를 버리고 비교적 평탄한 습지대였던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치는 바람에 왜군은 문경새재를 힘들이지 않고 넘어올 수 있었고 탄금대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 한양으로 손쉽게 진입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일자가 4월 14일이고 충주가 함락된 일자가 4월 29일 저녁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니시의 군대가 한양에 당도한 것이 5월 2일이라고 하니 평상시 걸어서 보름 정도 걸렸던 영남대로 천릿길을 18일만에 돌파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부산에서 한양에 이르는 영남대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에 기록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왜군의 이런 무리한 진격으로 영남, 호남, 기호 지방에서 조직된 의병들의 활약에 의해 후방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고립되어 조·명 연합군에게 반격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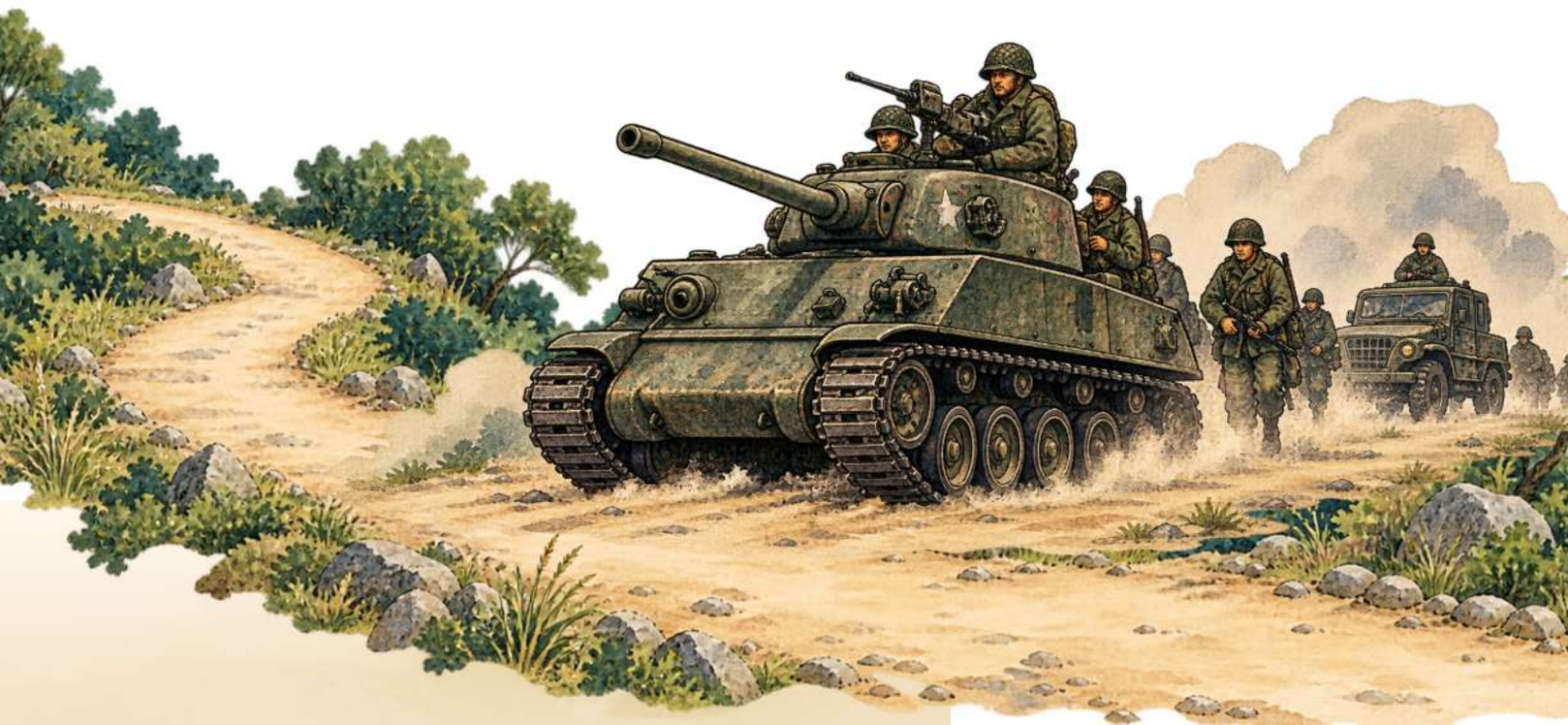


또한 영남길은 병자호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1936년 12월 27일 병자호란 당시 영남대로 상의 용인과 광주의 접경 지역인 험천 지역에서는 험천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세규가 이끄는 충청도 근왕군 8000명이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인조를 돕기 위해 북상하다가 양고리가 이끄는 청나라의 대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이후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이 1637년 1월 30일의 일이니 이 전투의 패배 역시 삼전도의 굴욕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남대로는 한국전쟁 중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는 진격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남길을 답사하며 마을 어른들에게 당시 기억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민군들은 마을 청년들 중 길을 잘 아는 몇 명을 징발하여 탱크를 앞세운 채 포장도 되지 않은 영남로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주요도로에서 벗어나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영남대로의 구간도 대규모 군사이동에 이용될 만큼 길로서의 기능이 보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남대로는 인민군의 진격로이기만 한 것이 아닌 퇴각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상자도 속출하고 패잔병들이 피로에 지치자 무기들을 다 버리고 후퇴하는 바람에 치안대에서 나와 이 무기들을 수거해 마을 단위의 자치의용대를 조직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남대로는 우리 역사상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 문화적 자취가 담겨있는 영남대로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길 위에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경기옛길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끝으로 '기록따라 걷는 영남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출처: 『경기옛길 속 민속』 경기학연구센터 발행, 김준기 저



독자참여 이벤트!

QUIZ

O X

1. 영남대로는 임진왜란뿐 아니라 6·25전쟁 당시에도 군대의 이동로로 이용되었다.
2. 지평향교는 조선시대 지방 교육과 유교 문화를 담당했다.
3. '경기옛길 지키개'는 삼남길에서만 활동한다.
4. 겨울호 '길따라 맛따라'에서는 팥을 활용한 맛집 세곳을 소개한다.
5. 삼형제바위 이야기는 부성애와 관련된 전설이다.



독자의견

소식지 및 경기옛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을 우측 하단의 링크에 연결된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총 세분을 뽑아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1월 한달간 진행)


경기옛길
문화유산 탐방
문화유산을 찾아라!
옛길로그 SEASON2
운영기간 | 2026. 9. 7.(월) ~ 11. 29.(일)
경기도
경기옛길센터

안전한 도보여행을 위한 안내

1.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의 도보여행은 삼가주세요
2. 혼자 도보여행을 할 경우 주변사람에게 행선지를 알리세요
3. 가급적 2명 이상 함께 도보해주세요
4.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해 비상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5. 물, 간식, 응급약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6. 찻길을 걸을 때는 길가에 붙어서 한 줄로 걸어가세요
7. 도보에 불필요한 귀중품, 장신구 등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8. 태풍, 폭우, 공사 등으로 위험지역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피며 걸으세요
9. 안전은 결국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도보시 항상 안전 유의



경기옛길 누리집 www.ggcr.kr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 031-231-8524
(16488)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옛길센터(4층)



경기옛길 소식지

2026 겨울호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옛길센터